'무적의 철완' 양현종, 좌완 첫 5년 연속 1800이닝 정조준

후반기 최강 투수…앞으로 5경기 등판 예정

KIA타이거즈 양현종(31)이 철완의 길을 가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22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이닝 5피안타 무실점의 역투를 펼쳤다.

단 89개의 볼을 던지며 키움의 강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8회를 마치고 5-0으로 앞선 가운데 불펜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러나 젊은 불펜투수들이 9회말 5실점 하는 바람에 14승 사냥이 무산됐다.

승리는 날아갔지만 쾌투는 이어지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10일 삼성과의 대구경기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안았다. 1회 1점을 내주었으나 이후 6회까지 영의 숫자를 찍었다. 다음 2경기에서 15이닝 동안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이날까지 정확하게 20이닝째 무실점 행진이다.

후반기는 최강의 투수이다. 대구경기 이전 2경기 16이닝을 완봉 포함 무실점으로 막았다.

후반기 5경기 37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주는 완벽한 투구를 하고 있다. 후반기 평균자책점(ERA)은 0.24에 불과하다. 단연 1위이다. 등판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구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양현종은 이미 좌완투수로는 최초로 6년 연속 150이닝 이상을 던졌다. 이날까지 159⅓이닝을 소화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6년 연속 170이닝을 돌파하고, 5년 연속 180이닝까지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경기 정도 등판할 예정이다. 경기당 6이닝씩만 소화해도 가볍게 180이닝을 넘긴다.

KBO 역사상 역대급 이닝이터는 작고한 최동원 투수이다. 무려 5년 연속 2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철완이었다. 현대 에이스 정민태는 8년 연속 180이닝 이상을 던지기도 했다.

나이와 구위 및 경험을 감안한다면 180이닝 시즌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좌완 철완이자 이닝이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황의조, 3경기만에 리그1 데뷔골 작렬

71분 소화한 뒤 교체…보르도, 디종 2-0 제압

황의조(27·지롱댕 드 보르도)가 프랑스 리그1 진출 3경기 만에 마수걸이 골을 신고했다.

황의조는 25일(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의 스타드 가스통-제라르에서 열린 2019-20 리그1 3라운드 디종과의 원정경기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반 11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사무엘 칼루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는 과감하게 안으로 침투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황의조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린 지롱댕 드 보르도는 디종을 2-0으로 제압했다.

황의조는 71분을 소화한 뒤 후반 26분에 교체됐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리그1에 진출, 보르도 유니폼을 입은 황의조는 3경기만에 데뷔골을 신고했다.

지난 두 경기에서도 선발출전 했지만 아쉽게 데뷔 골을 기록하는 데 실패했다. 황의조는 3경기만에 홈 팬들 앞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는데 성공했다.

한편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한 보르도는 3라운드까지 1승1무1패를 기록하며 승점 4점을 획득, 리그 9위에 올랐다.

반면 승리 없이 3패째를 기록한 디종은 이번에도 승점을 얻지 못하며 리그 18위로 처졌다.

뉴스1

정유선, 목포국제투척대회 여자 포환던지기 우승

정유선(22·괴산군청)이 2019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우승했다.

정유선은 24일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6m23을 기록해 정상에 섰다.

2위는 16.03m를 던진 이수정(26·서귀포시청)이 차지했고, 3위는 15m02를 기록한 에카와티(인도네시아)에게 주어졌다.

정일우(33·남양주시청)는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18m22로 2위에 올랐다. 1위 이반 이바노프(카자흐스탄·18m86)에 64㎝ 뒤졌다. 황인성(35·포항시청)은 17m51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원반던지기에서는 남자부 김일현(25·논산시청)과 김동혁(24·포항시청)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여자부 정지혜(21·한국체육대학교)는 3위.

정유선(22·괴산군청)이 24일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열린 2019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우승했다

이 밖에 이윤철(37·음성군청)은 남자 해머던지기 2위, 김경애(31·대전광역시청)는 여자 창던지기 2위에 랭크됐다.

류현진 30일 애리조나전 선발 등판…9월엔 휴식 주어질수도

류현진(32·LA 다저스)이 오는 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원정 경기에 예정대로 등판한다. 하지만 9월 들어서는 피로 완화를 위해 등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 등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애리조나를 상대로 선발 등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어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9월 들어 등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판을 건너 뛰거나 투구 이닝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맹활약을 펼쳐오던 류현진은 지난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원정에서 5⅔이닝 4실점, 24일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4⅓이닝 7실점으로 부진하며 2연패를 당했다. 1점대이던 평균자책점은 2.00으로 치솟았다.

로버츠 감독은 "구속과 제구, 구종 유지 능력 등에서 피로의 징후를 볼 수 있다. 지난 2경기에서 제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 구단 스태프 등과 얘기해본 결과 피로 증상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피로감이 없더라도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류현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이 9월 들어 등판을 거르더라도 다저스가 선발진을 꾸리는데는 문제가 없다. 신인 더스틴 메이가 27일 샌디에이고전에 등판할 예정이고 부상자 명단에 오른 로스 스트리플링, 리치 힐 등의 빅리그 복귀도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1